

금호석유화학 내부지분율 26% 급증

증권거래소, 10대 그룹 직접지배력 약화 ... LG석유화학은 40% 감소

10대 그룹 총수들이 자체 보유지분을 낮추는 반면, 지주회사나 계열사를 통한 간접 지분을 늘림으로써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LG와 금호석유화학의 내부지분율은 각각 31.5%와 26.2% 증가했으나, LG석유화학과 SK, 한화석유화학은 40.3%에서 13.2%까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1월29일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2000년 이후 10대 그룹 계열사 지배구조 변화>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상위 10개 그룹 계열 72개 상장기업의 회장 및 친인척, 임원이 보유한 지분은 2003년 말 기준 평균 8.72%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2.58%p가 줄어든 수치로 2000년 말 기준 11.30%, 2001년 말 8.97%, 2002년 말 8.64%로 하락세를 지속하다 2003년에 다소 높아졌다. 반면, 계열기업의 보유지분은 2000년 말 31.46%, 2001년 말 32.35%, 2002년 말 32.91%, 2003년 말 32.27%로 3년 사이에 0.81%p 높아졌다.

회장과 특수관계인을 모두 합친 10대 그룹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2000년 말 46.60%에서 2003년 말 44.92%로 1.68%p가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말 기준 내부지분율은 삼성 23.18%, LG 32.07%, 한진 37.18%, SK 39.33%, 현대자동차 43.54%, 한화 45.32%, 두산 50.94%, 롯데 56.85%, 동부 58.83%, 금호 61.96%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롯데미도파(79.01%), 동부한농화학(74.71%), 동양백화점(74.02%), 동부정밀화학(73.79%), 금호석유화학(67.30%) 등은 내부지분율이 70%를 넘는 반면, 삼성물산(8.31%), 제일모직(12.89%), 삼성전자(13.79%), SK(18.21%) 등은 10% 안팎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지분율 상위기업

(단위: %)

내부지분율 증가 상위기업

(단위: %, %p)

구 분	소속 그룹	내부지분율			
		2000	2001	2002	2003
롯데미도파	롯데	-	-	79.01	79.01
동부한농화학	동부	72.27	76.81	74.71	74.71
동양백화점	한화	77.27	75.81	76.05	74.02
동부건설	동부	71.26	73.21	73.55	73.90
동부정밀화학	동부	69.24	73.93	73.79	73.79
금호석유화학	금호	41.15	64.28	68.99	67.30
한국공항	한진	77.73	65.70	65.70	64.27
비앤지스틸	현대차	69.37	69.37	69.37	61.42
현대하이스코	현대차	48.93	60.80	60.80	60.94
금호종합금융	금호	33.92	49.37	56.89	59.50

† 2003년 말 기준

구 분	소속 그룹	내부지분율		
		2000	2003	증감률
LG	LG	18.73	50.23	31.50
금호석유화학	금호	41.15	67.30	26.15
금호종합금융	금호	33.92	59.50	25.58
현대하이스코	현대차	48.93	60.94	12.01
SK케미칼	SK	18.19	26.44	8.25
제일기획	삼성	18.51	26.50	7.99
동부제강	동부	51.67	58.61	6.94
금호산업	금호	52.32	59.07	6.75
롯데삼강	롯데	39.37	45.73	6.36
호텔신라	삼성	13.82	19.93	6.11

† 2001년 이후 계열편입, 신규상장 법인은 제외

2000-2003년 사이 내부지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화학 관련기업으로는 LG(31.50%), 금호석유화학(26.15%), SK케미칼(8.25%) 등이 포함된 반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으로는 LG석유화학(-40.33%), SK(-16.92%), 한화석유화학(-13.16%) 등이 꼽혔다.

증권거래소는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을 위한 보유지분 매각 등으로 인해 그룹 총수 및 친인척의 지분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그룹 내 지주회사나 계열기업의 보유 지분을 늘려 그룹 총수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02>